

2007년도 연안항 개발 계획



최 금 인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I. 연안항 지정현황

연안항은 무역항과 함께 항만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만 중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연안항은 2005.12.9일 월포항을 어항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송공항 및 갈두항을 지정함으로써 총 24개소가 있으며 연안항의 육상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시사와 협의한 후 항만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도에는 전국 24개 연안항에 대하여 항만법 제7조에 의거 2002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재검토 후 수정·고시할 계획이다.

항만을 지형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해안에 연한 항을 통칭하여 연안항(coastal harbour)이라 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항만법상에 정의된 연안항으로만 한정하여 개발계획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연안항 이용실태

연안항은 수출입화물을 전담 처리하는 무역항과 달리 각 권역별로 발생하는 연안화물 및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구분되고 있으나 울릉도, 제주도, 대흑산도 등 도서와 육지지역을 연결하는 연안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은 연안화물 및 여객의 수송보다는 오히려 어업의 근거지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연안항이 대부분 도서지역이나 배후권 개발이 낙후된 내륙연안에 위치하여 연근해어업의 전진기지나 대피항구로서의 기능을 주로 해 왔고, 일부 항에서만 인근도서와 내륙간 화물 및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병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개 연안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항은 비인, 대흑산도, 애월, 한림, 화순, 성산포, 화홍포, 녹동신, 주문진항 등 9개항이며, 여객을 수송하고 있는 항은 연평도, 대천, 흥도, 대흑산도,

성산포, 화홍포, 녹동신, 나로도, 거문도, 후포, 울릉항과 2005년 12월 신규 지정된 송공항 및 갈두항 등 13개 항에 이르고 있다.

III. 2007년도 연안항 건설 투자계획

연안운송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장거리·대량 운송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운송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육상운송 마비시 비상 물류망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연안운송 화물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서교통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안항을 주로 이용하는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항의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도에는 제주 애월항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연평도항 방파제 및 거문도항 덕촌 물양장 실시설계와 홍도 터미널 설계비 등 10개항에 총 374억 원을 투입하여 안벽, 방파제, 물양장 등의 항만기반시설을 확충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홍도항 여객터미널, 팽목항 보상 등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화순, 용기포, 대흑산도, 홍도, 녹동신, 울릉, 주문진, 성산포항에 항만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포항 건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용기포항을 국가방위의 전초기지 및 안보, 해양관광 자원의 개발 거점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497억 원을 투자하여 외곽시설 916m, 접안시설 280m, 준설 525천m³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도에 54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 비인항 건설

비인항 건설을 통해 연근해 주어장인 연도, 어청도 어장의 어업전진기지를 마련하고 군·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어선 입·출항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체 어항을 확보하고자 '9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46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635m, 물양장 411m, 호안 755m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5년도에 21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6년도에는 22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및 물양장을 축조할 계획이다.

다. 대흑산도항 건설

대흑산도항은 파랑내습에 대비한 긴급 대피항으로서의 역할과 서남해안의 어업전진 기지항으로서의 개발 및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하는 연안항으로써 여객부두, 양육부두 등 항만기능별 시설확충을 위해 '80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6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 방파제 570m, 안벽 140m, 카페리부두 220m, 해수유통시설 100m를 완료하고, 물양장 892m 등을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항내 불법 가두리양식장의 미철거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었으나 2007년도부터 15억원을 투입하여 물양장 축조 및 선가대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라. 홍도항 건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에 위치한 홍도항은 늘어나는 관광객을 원활히 수용하고 홍도항내의 정온수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접안 및 대피를 도모하고자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확충을 해

오고 있다. '97년도에 선착장 120m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외곽시설 200m, 여객부두 100m 및 연결인도 200m는 2008년까지, 여객터미널 1동은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도에 107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79억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을 축조할 계획이다.

마. 팽목항 건설

팽목항은 인근 도서간의 여객운항 등 해상교통의 지역거점으로 개발하여 원활한 연안화물 및 여객수송을 도모하고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88억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262m, 집안시설 190m 등을 축조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2002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어업권 피해보상비로 10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 녹동신항 건설

녹동신항을 인근도서를 잇는 해상교통의 지역거점으로 개발하여 서남권 지역의 원활한 연안화물 및 여객수송을 도모하고자 '94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933억원을 투입하여 가호안 1,187m, 안벽 635m 등을 축조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2006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실시설계용역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8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축조, 배후부지 지반 개량, 여객선터미널 신축 실시설계 및 사

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 화순항 건설

화순항을 제주 서부지역 연안화물의 수송 지원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93년부터 총사업비 1,204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660m, 안벽 850m,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준설, 포장 및 기타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방파제 축조 30m에 5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71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48m를 축조할 계획이다.

아. 성산포항 건설

성산포항은 제주동부지역의 연안화물 수송 및 어업의 전진기지로 2001년까지 543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599m, 안벽 705m, 어선물양장 140m를 완료한데 이어, 어선증가 및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 부족해소 및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하여 2단계 사업인 성산포항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성산포항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11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5월에 완료하였다

2006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34억원을 투입하여 파제제 38m를 축조할 계획이다.

자. 울릉(사동)항 건설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객 및 화물량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1,421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750m, 호안 413m, 어선 및 여객부두 620m 등을 축조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도까지 1,28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750m, 호안 413m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83억원을 투자하여 어선 및 여객부두 620m를 완료할 계획이다.

차. 주문진항 건설

인근지역의 어선증가 및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 부족해소와 항내 정온수역 확보 및 항내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연장 50m, 방파제 절개 35m, 물양장 501m, 해수교환방파제 24m, 월류제 150m 등을 축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06년도까지 12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17억원을 투입하여 방사제 15m 및 방파제 48m를 축조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우리나라의 연안항 개발은 2002년 전국 연안항 항만 기본계획(2차)을 근간으로 연근해 어선 및 어획물 처리를 위한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민의 생활편의 및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한정된 정부예산, 타분야 SOC에 비해 낮은 투자우선순위, 개발여건 형성 미흡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립된 계획 내용대로 모든 지역의 연안항 개발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육상운송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었던 연안운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연안물류 유통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연안 해상교통 요지 및 어업근거지 역할 수행으로 도서주민 정주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주5일 근무의 확산에 따라 연안 및 도시를 찾는 인구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연안항을 물류의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해양생물의 다양한 서식공간 및 생육환경 확보 등의 생태계를 배려한 어장, 해안환경의 유지·복구 및 창조의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안항 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안운송 활성화 대책 마련과 아울러 여가공간으로서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레크레이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친수·레저기능 등을 포함, 다기능 연안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2년도에 수립한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재검토 후 수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